

PA-26

충남평야지에서 삼광벼 이앙시기에 따른 생육 및 품질특성 변화김규철¹, 조기원¹, 정종태¹, 윤덕상¹, 윤여태^{1*}¹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추사로 167, 충청남도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서론]**

충청남도 벼 생산 면적은 2022년 기준 13만 4천ha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품질 브랜드쌀 원료곡으로 2010년부터 삼광 품종을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다. 충남지역 삼광 품종 재배면적은 2018년 41.9% (56,129ha)를 차지한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최근 2년간 감소 폭이 둔화하면서 삼광 품종 충남 재배면적은 약 27% (36,308ha)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쌀 적정생산 정책으로 다수확 품종을 지양하고 고품질의 품종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앙시기에 따른 생육 및 특성 변화를 통해 삼광 품종의 원료곡 품질을 더욱 높일 수 있는 이앙시기를 구명하고 농가 교육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이앙시기는 총 4처리로 5월 16일, 5월 25일, 6월 6일, 6월 16일에 충남농업기술원 답작팀 예산 시험포장에 주당본수 3~4본으로 손이앙하였다. 질소소비량은 9kg/10a 수준으로 기비(70%)와 이삭거름(30%)으로 분시처리 하였고, 출수 후 적산온도 1,100°C에 도달하는 날 수확 작업을 진행하였다. 주요조사항목은 농업과학기술 연구조사분석기준(농촌진흥청, 2012)에 따라 출수기, 생육, 수량 등을 조사하였다. 외관품질은 품위분석(Cervitec 1621, Foss), 단백질함량은 성분분석기(Infratec 1241, Foss), 취반윤기치는 토요식미기(MA-90R2, Toyo)를 이용하여 각 업체의 메뉴얼을 준수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결과 및 고찰]

삼광 품종 출수기는 5월 16일 이앙에서 8월 9일로 가장 빨랐으며, 이앙시기가 10일 간격으로 늦어짐에 따라 약 7일씩 늦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간장은 가장 늦게 이앙한 6월 16일에서 83cm로 가장 작았으며, 5월 25일과 6월 6일은 89cm로 동일하였다. 단위면적당 영화수는 이앙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5월 16일에 32,940개/m²로 가장 높았지만, 등숙비율은 84.1%로 가장 낮았다. 완전립율은 이앙시기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단백질함량은 이앙시기가 가장 늦은 6월 16일에 6.4%로 가장 높았고 다른 이앙시기는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취반윤기치는 5월 25일과 6월 6일에서 각각 79.9와 80.3으로 가장 높은 경향을 보였다. 품질을 고려한 완전미 수량성은 5월 25일 이앙에서 572kg/10a로 가장 높았으며, 5월 16일 571kg/kg, 6월 6일 552kg/10a, 6월 16일 526kg/10a 순으로 줄어들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충남평야지에서 삼광 품종의 수량성과 품질을 고려한 적절한 이앙시기는 5월 25일~6월 6일로 나타났으며, 6월 16일 이후의 이앙은 수량성과 품질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Corresponding author: E-mail, yotai@korea.kr Tel. +82-41-635-6050